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연령을 조절효과로 분석 -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박 찬 호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연령을 조절효과로 분석 -

지도교수 나 종 민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박 찬 호

박찬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위 원 장 \_\_\_\_\_ 최 종 원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김 준 기 \_\_\_\_\_ (인)

위 원 \_\_\_\_\_ 나 종 민 \_\_\_\_\_ (인)

##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 요양환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경고와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산업재해 근로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를 제언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 산재요양종결자 중 3,294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패널 2차 코호트조사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독립변수는 산업재해 요인(재해유형,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경제적 요인(취업여부, 가구소득), 심리·사회적 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산재보험 패널데이터에서 ‘일상생활만족도’ 6문항을 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두었다. 60세를 기준으로 고령자와 비고령자를 나누어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령(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 삶의 질 수준은 5점 척도에 평균 3.20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재해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교류변화, 배우자 유무, 자기효능감, 취업여부, 가구소득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고령 산재근로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교육수준과 성별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산재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토한 결과, 심리·사회적 요인 중 교류변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 산재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 제도를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고령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으며, 요양초기 간병비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고령 산재근로자, 삶의 질,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

**학 번 : 2021-20989**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5
제 1 절 이론적 배경 .....	5
1. 삶의 질 .....	5
2. 고령자의 삶의 질 .....	9
3.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12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20
1. 고령자 삶의 질 관련 연구 .....	20
2. 산재근로자 삶의 질 관련 연구 .....	25
3. 고령 산재근로자 .....	31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결과 .....	33
제 3 장 연구설계 .....	34
제 1 절 연구대상 .....	34
1.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정의 .....	34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	34
제 2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	36
1. 연구모형 .....	36
2. 가설의 설정 .....	37
제 3 절 연구방법과 변수의 정의 .....	38
1. 연구방법 .....	38
2. 변수의 정의 .....	39

제 4 장 분석결과 .....	42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	42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2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	44
제 2 절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	48
제 3 절 변수간 상관관계 .....	49
제 4 절 가설의 검증 및 연구결과 분석 .....	53
1.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3
2.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6
3. 산재근로자 삶의 질과 연령의 조절효과 검증 .....	60
제 5 장 결론 .....	67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67
제 2 절 정책 제언 .....	70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72
참고문헌 .....	74
Abstract .....	81

## 표 목 차

[표 2-1] 삶의 질 접근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객관적, 주관적 평가의 기준··	6
[표 2-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8
[표 2-3]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	15
[표 2-4] 연도별 주요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	16
[표 2-5] 재활사업 요약 .....	19
[표 2-6] 고령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 요약·	22
[표 2-7] 연령·세대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 요약·	25
[표 2-8]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 요약·	27
[표 2-9] 경제적 요인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	28
[표 2-10] 심리·사회적 요인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30
[표 2-11] 재활프로그램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31
[표 3-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패널조사 개요 .....	35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3
[표 4-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치 .....	44
[표 4-3] 고령자 여부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치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46
[표 4-4] 연령별 일상생활만족도 .....	47
[표 4-5]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	48
[표 4-6]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산재근로자) .....	50
[표 4-7]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고령 산재근로자) .....	51
[표 4-8]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비고령 산재근로자) .....	52
[표 4-9]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중회귀분석)·	53
[표 4-10]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위계적회귀분석)·	55
[표 4-11] 비고령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57
[표 4-12] 고령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59
[표 4-13] 산재요인과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1)·	61



[표 4-14] 산재요인과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2) ·	62
[표 4-15] 경제요인과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	63
[표 4-16] 심리·사회요인과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	64
[표 5-1]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설 검증결과 ·	68
[표 5-2] 고령·비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 비교 ·	69

## 그 립 목 차

[그림 1-1]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	1
[그림 2-1] 연도별 사업장 · 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 ·····	14
[그림 2-2] 연도별, 연령별 요양재해자 현황 ·····	14
[그림 2-3]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추이 ·····	16
[그림 3-1]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 ·····	37
[그림 4-1] 연령별 교류변화와 삶의 질의 상관그래프 ·····	66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경제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2021.2월,3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로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고령사회 진입 8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그림 1-1>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출처: OECD,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1.3월) 재인용

우리 사회가 미처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쓰나미급 사회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자살, 노인돌봄, 노인 의료비용 증가, 노인 일자리, 노인의 사회적 고립 등이 그 일례다.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위한 사회정책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정책은 고령인구의 삶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노유지 외, 2018).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도에 더하여 노인빈곤율 또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 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한국경제연구원, 2021.2월).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끄러운 통계치다. 대부분 노인은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부양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는 염두도 못 내고 살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배경으로는 비교적 뒤늦게 도입된 노인복지정책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많다. 다른 노후소득 보장제도들은 최근에서야 도입되어 퇴직연금은 2008년, 주택연금은 2007년에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퇴직연금 미가입자나 무주택자인 경우는 수혜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노후제도에서 제외된 상당수의 노인은 결국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sup>1)</sup>

특히, 평균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퇴직 이후 고령자의 경제활동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청의 ‘2020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은 2010년 고령층 인구, 5,361천

---

1) 블로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년 11월 7일 접속  
<https://m.blog.naver.com/futurehope2017/222254759540>

명, 경제활동인구 1,590천명, 고용률 29.0%에서 2019년에는 고령층인구 7,713천명, 경제활동인구 2,622천명, 고용률 32.9%로 증가하였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노출될 확률을 높이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의 증가로 예견된다. 실제로 2019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2,680,874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18,725,160명) 중에서 109,242명의 요양재해자가 발생(사망 2,020명, 부상 92,932명, 업무상 질병 이환자 14,030명)하였고, 이중 60세 이상자는 31,661명으로 전체 요양재해자 중 28.98%에 해당하고 업무상 질병 이환자 중 60세 이상자는 5,643명으로 40.22%에 해당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010년도의 경우 60세 이상자는 전체 요양재해자 98,645명 중 14,273명(14.47%), 업무상 질병 이환자 6,986명 중 982명(14.06%)으로 2019년 60세 이상의 요양재해자, 업무상 질병 이환자 비중은 각각 14.51%P, 26.16%P 증가하였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단기적 정책으로 은퇴 시기의 연장을 제안하거나,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대응정책을 본보기 삼아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한국은행, 2017). 따라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고령층 민간 일자리 수요 증가 및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와 맞물려 노인들의 자발적·비자발적 경제참가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고령자의 산업재해 발생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라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근로자 본인의 개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이동, 일, 사회생활, 가족 간의 관계와 같은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이현지, 2015)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산재 근로자는 선천성 장애인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며 행동과 역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신체적 문제에 끝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민석, 2019; 고민석, 김종주, 2014). 특히, 고령 근로자가 산재발생 후 겪게 되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 사회관계의 단절은 행복과 생활만족도를 저해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각종 연구와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산재근로자 중 고령자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윤조덕 외, 1998, 이현주, 2004, 김선미 외, 2015, 안성아 외, 2016, 김영춘, 2018 등), 여성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임소희 2020)에 관한 연구만 존재한다. 고령자에 관한 연구는 고령화가 산재보험 재정에 미치는 연구(문성현, 2005, 오종은 외, 2013, 오종은, 2016),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근로환경의 취약점에 대한 연구(김영선 외, 2014), 고령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조은주 외, 2021)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산재근로자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산재근로자 중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일반 산재근로자와 차별화된 고령 산재근로자만을 위한 특별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고령 산재근로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우선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고령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 비고령 산재근로자(60세 미만)와 고령 산재근로자(60세 이상) 간 삶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산재보험 정책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제 1 절 이론적 배경

#### 1. 삶의 질

1960-70년대를 시작으로 개인이나 국가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행복이 무엇이며, 무엇에 근거하여 정의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심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으로 연구되었다.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 삶의 만족, 행복 등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배정현, 2014).

Veenhoven(1984)는 ‘주관적 안녕’은 행복의 정서적(affective) 측면을 구성하며, ‘삶의 만족’은 행복의 인지적(cognitive) 측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tock, Okun and Benin(1986)은 삶의 질 또는 주관적 안녕은 행복(Happiness), 사기(Morale), 만족감(Satisfaction)의 3가지 지표에 의해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행복감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비율을 의미하고, 사기는 자신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낙관의 정도로 정의되며, 만족감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만족 정도를 가리킨다. 행복은 감정적 차원의 삶의 질을 반영하고 삶의 만족은 평가적 차원의 삶의 질을 반영한다(박종민·김서용, 2002).

김상균 외(1996, 장영식 외, 2007 재인용)는 삶의 질이란 개념은 시대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경제 사회

의 발전 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삶의 질의 개념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 성원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의 변화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가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확인과 평가가 필요하다 하였다. 브리태니커 사전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개인이 건강하고 편안하며 삶의 일상에 참여하거나 즐길 수 있는 정도.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경험과 개인이 처한 생활 조건을 모두 나타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호하다. 따라서 삶의 질은 매우 주관적이다.’<sup>2)</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개인이 사는 문화와 가치 체계의 맥락에서 그리고, 자신의 목표, 기대, 기준 및 염려와 관련된 삶의 위치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정의한다.<sup>3)</sup>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온 삶의 질 개념은 주로 사회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데 주목한 경제학적 시각, 사회 체계(social system) 구성 요소 (예를 들어 인종, 지역, 종교 등)와 삶의 질 결정요인(예를 들어 범죄율, 교육수준 등) 간 관계에 주목한 사회학적 시각, 개인들의 주관적 경험으로서 행복감에 초점을 둔 심리학적 시각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고명철 외, 2012).

<표 2-1> 삶의 질 접근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객관적, 주관적 평가의 기준

구분	객관적(objective)	주관적(subjective)
사회적 수준 (soietal level)	사회의 질적 측면 (quality of society) (예: 소득 분배)	인식된 사회의 질적 측면 (perceived quality of society) (예: 부자와 빈자 간 갈등의 정도)
개인 수준 (individual level)	객관적 삶의 조건 (objective living conditions) (예: 소득)	주관적 안녕 (subjective well-being) (예: 소득 만족)

자료: Beck et al.(2001): 정해식.(2012)에서 재인용

2) <https://www.britannica.com/topic/quality-of-life>. Accessed Oct. 17, 2021.

3)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Measuring Quality of Life." Accessed Oct. 17, 2021. (<https://www.who.int/tools/whoqol>)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접근에서는 소득 분배 수준과 같은 사회의 질적 측면과 각 개인이 인식하는 부자와 빈자 간 갈등의 정도와 같은 인식된 사회의 질적 측면 두 가지를 사회적 수준에서 삶의 질의 기준으로, 그리고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이며 개인적인 수준을 객관적 삶의 조건과 소득 만족과 같은 주관적 안녕의 두 가지를 개인적 수준에서 삶의 질의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기준이 삶의 질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본다(정해식, 2012).

삶의 질을 정의하는 것만큼이나 측정하는 과정 및 지표 또한 학자마다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왔다(최효진, 2017). 삶의 질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주로 사용한 ‘삶의 수준’(level of living) 접근으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북미의 국가에서 주로 접근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이다.(정해식, 2012)

최근의 삶의 질 접근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결과를 두루 사용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 만족도 등의 지표가 두루 섞여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더 나은 삶 지수’에도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혼합돼 있다. (정해식 외, 2019) 객관적인 평가(objective evaluation)란 건강, 소득, 주거의 질, 친구 관계, 활동, 사회적 역할 등과 같은 삶의 조건에 대한 기술을 의미하는 반면, 주관적 평가(subjective evaluation)는 삶의 조건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Felce, D. & Jonathan P, 1996, 윤조덕 외, 1998 재인용).

생활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고민석 외 2014). Medley(1976)는 생활만족도를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개인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적절한 행동, 태도, 그리고 기대수준이 형성되며, 이러한 기대는 다른 사람과 비교



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어떤 요소들이 삶의 질을 구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Felce와 Perry(1997)는 삶의 영역을 신체영역, 물질영역, 사회영역, 정서영역, 생산영역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신체영역은 신체의 건강,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물질영역은 가족, 친척, 친구, 동료와의 대인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지원과 관계되어 있다. 정서영역은 성취,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지위와 존경 등과 관련이 있으며, 생산영역은 선택권, 자기 통제감, 독립성, 자기 성장 등을 포함한다. Frey & Stutzer(2002)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2-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요소
개인적 요인	자존감, 자기통제, 낙관주의, 외향성, 신경과민 등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성별, 결혼 상태, 교육 등
경제적 요인	개인소득, 총소득, 실업, 물가상승 등
맥락적·상황적 요인	특정 고용 조건 및 근로 조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직장동료·친척·친구·배우자와의 인간관계, 생활환경과 건강 등
제도적 요인	정치의 탈집중화,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정도 등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평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인간으로서 모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주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의 경우도 살고 있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장영식 외 2007).

삶의 질을 설명하는 또 다른 연구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상향이론

(Bottom-up theory)과 하향이론(Top-down theory)의 접근법이 존재한다(김종일, 2013). 상향이론의 접근은 개인의 행복감이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수준,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향이론의 접근에서 행복은 개인의 성격의 경향이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향이론에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해석하는 심리적 경향성 즉 성격, 태도, 신념 등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데 관심을 둔다(이지수, 2007). Brief, Butcher, George와 Link(1993)는 이에 대한 통합모델로서 객관적 조건과 개인의 심리적 조건이 함께 주관적 만족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선미 외(2015)는 Brief, et al.(1993)에서 제시한 통합모델을 근거로 상향이론에서 제시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취업상태, 요양기간, 장애등급, 근로기간, 근로형태, 한 달 평균임금, 재활서비스 필요성 정도, 비법정 복리후생 등의 객관적 조건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산재 및 사업장 관련 요인으로, 하향이론에서 제시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주관적 건강상태의 심리적 특성을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재보험 패널조사를 활용한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연구 논문 대부분에서는 삶의 질 척도 중 일상생활만족도가 사용되었고, 일상생활만족도는 가족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6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 2. 고령자의 삶의 질

현재 국내법상 고령자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

연금법에서는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을 불러왔다.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 잘 늙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열망을 넘어서 노년의 삶의 질로 옮겨지고 있다(한준상, 2002). 따라서, 단순한 경제적인 만족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다(박선숙, 2018).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eing)의 개념은 1960년대부터 서구 사회에서 대두되었고, 이후 노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지속 되었다(노유지, 2018). 특히 Neugarten, Havighurst, & Tobin(1961)이 건강한 고령화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면서 관련 개념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박순미, 2011). Neugarten et al.(1961)은 삶의 만족도를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고, 삶의 만족을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기쁨, 삶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목표성취, 낙천적 태도와 감정 등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노년기는 신체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청년과 중장년 시대를 은퇴하고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은 자신이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노화 과정에서 오는 도전과 과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수용하는지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이나 행복이 결정되어 진다고 하였다. 즉, 노인의 복지 측면에서 보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성공적인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박선숙, 2018). 여기서 성공적인 노화란 신체, 사회, 심리, 경제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 기능과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를 말한다(최희경, 2010. 박선숙, 2018에서 재인용).

성지영 외(2017년)에 의하면 다수의 서구 연구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Angelini et al., 2012). 또 다른 연구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Chen, 2001; Schilling, 2005). 한편 일부 연구는 연령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가 U자형의 비선형 관계라고 주장하였다(Blanchflower & Oswald, 2008; Gwozdz & Sousa-Poza, 2010). 또 다른 연구는 65세 정도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낮아지는 역U자형 비선형 관계를 보인다고 제시한다(Mroczek & Spiro, 2005).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UNFPA의 지원으로 개발한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globalagewatch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전체 96개국 중 60위를 차지해 노인 복지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 총 4개 영역 중 노인의 소득보장 부문은 82위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연금 소득 보장은 52위로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OECD 국가 기준 노인빈곤율은 48.5%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65세 이상 노인들의 가난한 노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남소희 외, 2018).

한편, 2008년에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제도의 도입이 있었는데, 일정 소득 이하의 만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제도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다. 이 두 제도의 출범으로 인해 더욱 보편적인 노인복지제도의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고, 2008년 이후 노인복지예산의 규모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 제도 이외에도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구첵회 2015).

고령자의 삶의 만족에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건강 등 신체적인 요인과 함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 가족 및 주변인 등과의 인

간관계인 사회적인 요인, 경제활동 등 여러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이경란, 진미현 2019, 한수정 2021에서 재인용). 특히, 노년의 시기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왕성히 활동했던 청년 중장년 시대를 은퇴하고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시기로서 노인의 삶의 만족은 자신이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 상태라 할 수 있다(박선숙 2018).

### 3.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가. 개요 및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sup>4)</sup>

---

4)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1년 11월 16일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1&cciNo=1&cnpClsNo=1&menuType=cnpccls&search\\_put=](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1&cciNo=1&cnpClsNo=1&menuType=cnpccls&search_put=).

1964년 법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에만 적용하던 산재보험을 2000년부터는 농·임·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2020년 말 현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약 272만개, 적용근로자수는 1,897만명에 달하며, 이는 산재보험 실시 (64개소, 82천명) 이후 적용사업장은 약 42,489배, 적용근로자수는 231배나 증가한 수치이다(고용노동부, 2021).

산재보험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도입 당시(1964년 7월 1일)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11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로 한정되었다. 이후 1971년 1월부터 8일 이상의 재해로 확대된 후 1982년 1월부터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로 확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아래 <그림 2-1>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사업장·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사업장<sup>5)</sup>·근로자<sup>6)</sup> 및 요양재해자<sup>7)</sup>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지수 100으로 할 때 2019년도는 사업장이 167, 근로자는 132, 재해자는 111로, 전년도보다 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며 사업장수, 요양재해자 수는 증가하였다. 아래 <그림 2-2>는 연도별, 연령별 요양재해자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령별 요양재해자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60세 이상의 급격한 증가이다. 60세 이상 요양재해자가 2015년 20,016명에서 2019년 31,661명으로 2015년 대비 58.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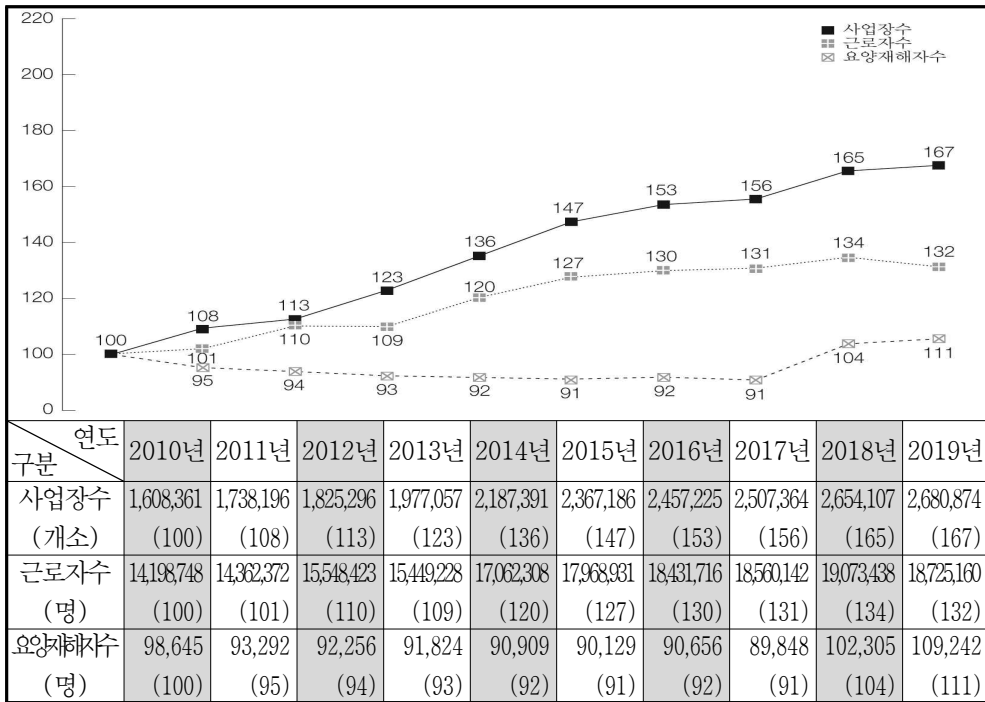
---

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6)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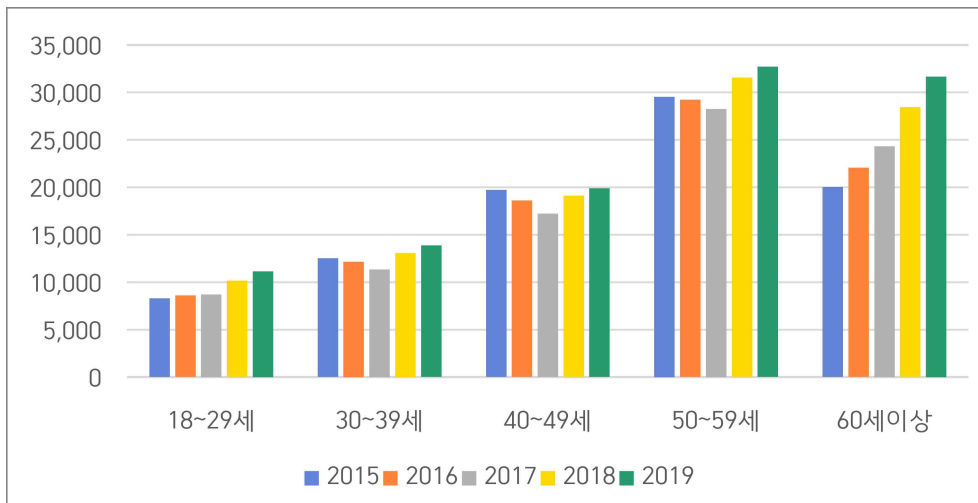
7)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그림 2-1> 연도별 사업장·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



※ ( )는 2010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지수 100이라 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임  
출처: 고용노동부(2020) 「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그림 2-2> 연도별, 연령별 요양재해자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2020) 「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

산재보험의 주요가치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 타 사회보험에 비하여 포괄적·종합적이며, 특히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안의 부상, 질병, 장애 등에 대하여, 근로기간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치료와 급여(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장하여 당해 근로자 보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이다(윤조덕, 2016). 그동안 산재보험 제도는 수차례 법령 개정과 요양·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를 확대해 왔다.

<표 2-3>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구분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요양급여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상병보상 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 해당자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연금: 1급(329일)~7급(138일) - 일시금: 1급(1,474일)~14급(55일)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가산금액 (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간병(상시, 수시)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	-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 수시간병 1일당 27,450원
직업재활 급여	- 장해1급~12급 장해급여를 받은 자 또는 요양중으로서 장해1급~12급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 (근로자 지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 (사업주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	평균임금의 120일분 - 최고 15,867,020원 - 최저 11,438,960원
진폐연금	진폐재해자에 대하여 진폐보상 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지급 다만, 요양중 재해자는 제외	-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최저임금 60%) + 장해연금(연 24~132일분) - 진폐유족연금: 진폐보상연금 수준

출처: 고용노동부(2021) 「2020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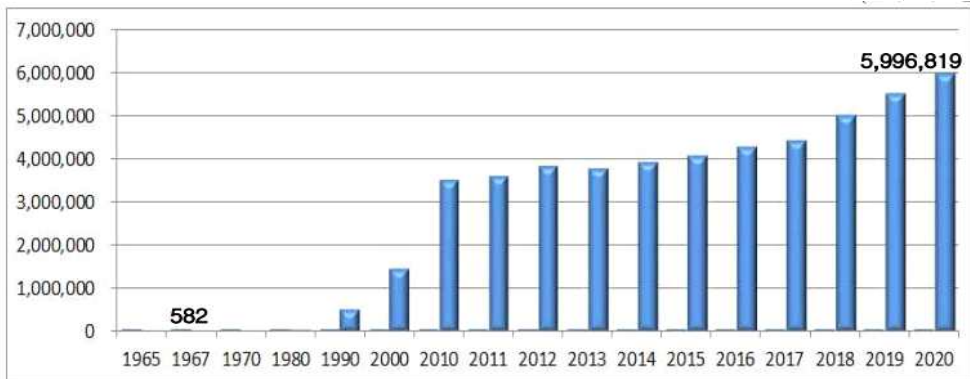


의비만 지급되었으나, 이후 상병보상연금과 간병급여를 도입하였고, '08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사회·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 '10년에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폐유족연금, 진폐보상연금을 도입하여 2020년 현재 <표 2-3>과 같이 9가지의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다(산재보험 사업연보, 2020).

위와 같이 산재보험급여 종류 확대와 함께 경제 발전에 따른 사업장 및 근로자수의 증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급속히 증가했으며, '20년 말 기준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5,996,819백만원으로 '67년 582백만원에 비해 10,304배나 증가하였다.

<그림 2-3>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원)



출처: 고용노동부(2021) 「2021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표 2-4> 연도별 주요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장해일시금		장해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2018	207,456	1,015,138	125,162	110,740	33,467	557,839	63,060	1,440,918	1,190	122,974	28,237	533,251
2019	225,665	1,085,076	137,309	1,319,085	38,097	636,432	63,875	1,521,293	1,145	123,639	29,714	586,535
2020	256,611	1,309,810	138,675	1,413,340	39,264	672,408	64,537	1,585,539	1,094	120,305	31,310	640,939

출처: 근로복지공단('20, '21) 「2019, 2020년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기업의 생산력 저하와 국가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며, 생애주기 동안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 및 보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유지·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의 전제조건으로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윤조덕, 2016).

## 나. 재활사업

산재보험은 '64년에 도입된 이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그동안 급여 수준 인상에만 치중하여 제도 전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치료 종결 후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 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 및 사회 복귀의 중요성을 '00년 시행된 법률에 명시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산재보험 재활·복지정책은 산재근로자의 단기적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복지적인 측면 외에 다시 일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기보다 독립적인 생산활동 주체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재활사업의 체계는 크게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사업의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의료재활은 산재근로자가 신체의 기능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이를 육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직업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해당 산재근로자의 신체 상태 회복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8개 재활 전문센터와 150개 재활 인증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심리재활은 산재 근로자들이 가지는 자기행동제한, 신체 부상에 따른 불안 및 욕구불만 등을 제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로는 재활스포츠, 심리상담, 희망찾기, 사회적응프로그램, 취미활동반, 멘토링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직업재활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즉, ‘원직장복귀, 재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대체인력지원사업, 직장복귀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 재활사업 요약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의료 재활	전문재활치료	공단 직영병원 8개 재활전문센터 및 150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치료 종결 이후 업무상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방지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사회 심리 재활	재활스포츠	- 대상 : 장애가 예상되는 통원요양환자 및 산재장애인 - 내용 : 스포츠활동에 대해 3개월간 월10만원 이내의 수강료 지원 (특수재활스포츠: 인당 최고60만원, 1개월 한도)
	심리상담	요양 중 심리안정·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개별 심리상담
	희망찾기 프로그램	-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환자 - 내용 :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초기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여 조속한 사회 및 직업복귀를 촉진
	사회적응 프로그램	- 대상 :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및 통원요양 중인 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내용 :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자기관리능력, 지역사회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
	취미활동반	진폐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취미활동 지원(월 5만원이내의 실비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직업·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 노동자(멘토)가 요양 중인 산재 노동자(멘티)에게 멘토링하여 멘티의 자신감과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원활한 직업·사회복귀를 지원 (멘토에게 1회당 수당 7만원~14만원 지급)
직업	직업훈련지원	- 대상 :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애인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재활급여 대상 : 제1급~제12급(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및 통원요양중인 자</li> <li>* 예산사업 대상 : 제1급~제12급(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li> <li>- 내용 : 훈련비(12개월 범위내 2회까지 연 600만원 한도), 훈련수당(훈련시간·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li> </ul>
	원직장 복귀지원	<p>&lt;직업재활급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제1급~제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li> <li>* 최대 12개월까지/제1급~제3급 월 60만원, 제4급~제9급 월 45만원, 제10급~제12급 월 30만원</li> <li>- 직장적응훈련비 :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제1급~제12급)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최대 3개월까지 월 45만원이내 실비지원, 10.04.28.이후 요양 중 포함)</li> <li>-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제1급~제12급)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최대 3개월까지 월 15만원이내 실비지원)</li> </ul> <p>&lt;대체인력지원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50인 미만)</li> <li>* (산재근로자) 장해등급판정자 또는 2개월(60일) 이상 요양자, (대체인력) 재해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30일 이상 고용 유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필수가입)</li> <li>- 금액/기간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50% 범위내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li> </ul> <p>&lt;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요양중인 산재근로자</li> <li>- 내용 :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신체기능향상, 모의 작업 훈련, 사업장 훈련지도 등” 직업능력강화프로그램 제공</li> </ul>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으로 직업훈련 수료자·진폐 장애인·창업업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종사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고용한유급근로자의 30%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하는 조직</li> <li>※'19년 신규지원 중단에 따라 기존점포에 대한 이전 및 재계약 점포만 지원</li> <li>- 내용 : 1.5억원 이내의 점포를 공단명의로 임차하여 최장 6년간 연리 2%로 지원</li> </ul>

출처: 고용노동부(2021) 「2020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1. 고령자 삶의 질 관련 연구

#### 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심 연구

권중돈, 조주연(2000)은 비율적 층화표집방법에 의해 표집된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600명에 대하여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 조사를 시행하여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노인의 교육정도, 일상생활 동작능력, 경제활동 참여여부, 경제생활의 애로정도, 주거편이도, 사회단체 활동 참여도, 친구 수라는 7가지 변인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군 노인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이 특성과 생활상황에 따라 영향요인이 각기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식, 하정철(2012)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였고,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노후활동희망, 자아통합감, 세대간조화의 3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삶의 만족도와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영역에서, 경제상태 영역, 경제활동 영역,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여가 및 사회활동 영역, 생활환경 영역의 질문으로 구성된 각 문항 점수의 평균을 삶의 만족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노후활동희망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을수록, 세대 간 조화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고, 자아통합감, 세대 간 조화, 노후활동희망의 순서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숙(2018)은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11차년도 설문조사 대상인 60세 이상 노인 5,966명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모형을 적

용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투입된 변수는 개인특성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동거유무, 종교유무를, 경제적 요인으로 집 소유, 고용형태, 가처분소득을, 신체적 요인으로는 하루 흡연량, 음주빈도, 장애등급, 만성질환 여부, 전반적 건강상태를, 심리적 요인 변인으로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사회적 요인에서는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고 그다음은 가족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개인특성 요인,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은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 사회관계와 가족관계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노인의 경우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동거여부, 종교여부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소희, 김갑년, 전수영 (2018)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의 5개년도 자료(1994, 2004, 2008, 2011, 2014)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다 2004년 이후부터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보였고, 1994년을 제외하고 모두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사회참여 및 지지망 특성에 대한 요인 모두 1개 이상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부분은 2008년 이후 배우자유무와 취업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분류나무로 확인된 규칙은 질병 수가 2.5개 이하이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배우자가 있으며 공적이전소득을 연 238.5만원 초과 수령하면 삶을 만족하는 것이다.

한수정(2021)은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KLoSA)의 7차년도 대상 패널 중 남녀 중 고령자 3,786명을 대상으로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건강만족, 친목 활동, 사회적 친밀감을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으며, 중 고령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반영하는 변인을 매개변

인으로 하여 각 변인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와 경로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만족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질에 각각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둘째, 친목활동은 주관적 계층의식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사회적 친밀감은 주관적 계층의식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삶의 질 변인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넷째, 건강만족과 삶의 질 변인 간에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친목활동과 삶의 질, 사회적 친밀감과 삶의 질 변인 간에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2-6> 고령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 요약

저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요내용
권중돈외 (2000)	인구사회학, 건강, 주거, 소득·경제, 여가·사회활동, 가족구조	삶의 만족도 (주관적안정감)	교육정도, 일상생활 동작능력, 경제활동 참여 여부, 경제생활의 애로정도, 주거편이도, 사회단체 활동 참여도, 친구수 등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침
최현식의 (2012)	노후활동희망, 자아통합감, 세대간조화	삶의 만족도 (가족, 경제, 건강, 여가, 환경등)	자아통합감, 세대간조화, 노후활동희망의 순서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미침
박선숙 (2018)	개인특성,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생활만족도 (Likert 5점척도)	사회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은 가족관계
남소희등 (2018)	인구사회학, 건강, 사회참여및지지도	삶의 만족도 (경제, 건강상태,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환경)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2008년 이후 배우자유무와 취업여부가 유의한 영향
한수정 (2021)	건강만족, 친목활동, 사회적친밀감	삶의 질 (주관적 만족도)	건강만족은 주관적계층의식을 매개로 삶의 질에 (+) 영향력, 친목활동과 사회적 친밀감은 주관적계층의식을 매개로 삶의 질에 (-) 영향력

## 나. 연령별 세대별 비교 연구

정명숙(2005)은 중·고·대학생, 성인,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삶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삶의 각 영역(신체, 물질, 사회, 생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측정하였다.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노인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각 영역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인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의 경우 물질영역과 신체영역의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전반적인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과 노인의 경우 경제수준이 전반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고, 노인 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숙(2019)은 2017년 한국복지패널의 12차연도 자료 중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세대 차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가처분소득, 건강상태, 그리고 정서적, 사회적 요인인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이 공통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세대별로 청년층은 배우자 동거와 음주빈도, 중장년층은 학력, 주택소유, 흡연량, 사적연금, 노년층은 배우자 동거, 고용상태,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청년과 중장년층 조절효과에서는 음주빈도와 가족관계가 부(-)의 조절효과, 청년과 노년층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배우자 동거, 음주빈도는 부(-)의 조절효과가, 건강상태는 정(+ )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학력, 배우자 동거, 고용상태는 부(-)의 조절효과가 있는 반면 건강상태, 우울, 가족관계는 정(+ )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한편 노년층은 중장년층보다 건강상태와 우울,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친 반면 학력과 배우자동거, 고용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적으로 더



낮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달, 이현희(2012)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차연도(1998년)와 11차연도(2008년) 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과거,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삶의 만족도 수준은 과거보다 현재가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과거, 현재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은 2008년 모델에서 취업자의 경우,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임금 또는 보수, 취업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998년 집단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서 성별, 입주형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배우자 유무는 2008년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미취업자 집단의 경우, 여가활동, 가족관계,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집단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교육수준 변수였다.

성지영, 남은영, 홍두승(2017)은 고령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노동패널 17차 및 18차 자료를 사용하여 고령층(55~74세)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년층 이하(20~54세)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연령과 삶의 만족, 연령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는 U자형 비선형의 관계로 중장년층 이하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와 직무만족도는 낮아지고, 반면에 고령층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두 만족도 모두 높아졌다. 두 연령층 공히 여성보다는 남성의 일과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음을 보여주었고, 직무 관련 및 직무 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두 연령집단 모두 직무만족도는 매우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2-7> 연령·세대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 요약

저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요내용
정명숙 (2005)	경제수준, 성별, 가족 유형, 부모교육수준, 성적, 가족유형 등	삶의 만족도 (전반적, 신체·물질·사회·생산영역)	전연령,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경제수준과 물질에 대한 만족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줌
박선숙 (2019)	개인특성, 경제적, 건강, 심리적, 사회적요인	삶의 만족도 (Likert 5점척도)	노년층의 경우 주택소유, 가처분소득, 공적연금가입,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사회관계는 정(+)의 유의적인 영향력
정순돌외 (2012)	인구사회학, 여가활동·주거환경·가족관계, 직업관련	삶의 만족도 (Likert 5점척도)	베이비붐세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은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임금, 취업안정성 등이 유의미한 변수
성지영외 (2017)	직무관련·직무외요인, 직무만족(매개)	삶의 만족도 (측정문항 2가지)	직무관련 요인은 직무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고령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일-삶 불균형과 기술적합도만이 유의함

## 2. 산재근로자 삶의 질 관련 연구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다룬 연구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요인 중심 연구와 요인별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로 나뉘볼 수 있다. 요인별로 분류하면 취업이나 소득 등 경제활동요인, 심리사회적요인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삶의 질을 검토하고 있다.

### 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심 연구

산재근로자 삶의 질과 관련한 대표적인 초기 연구인 윤조덕·박수경(1998)의 연구는 신규장해판정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측정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고 발생 이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진 항목은 경제상태

였고, 다음은 직장생활, 건강상태, 여가 및 취미활동, 배우자와의 관계, 종교생활,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들과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체적 요인(장애정도, 일상생활능력정도), 심리적 요인(장애에 대한 수용시기, 장애에 대한 인식정도), 사회적 요인(사회적 태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체적인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요인보다는 장애에 대한 수용시기나 장애에 대한 인식정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등의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이 삶의 만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성아 외(2016)는 산재보험패널조사 제1차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건강관련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심리사회적 요인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경제적 요인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수록, 근로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건강관련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타인의 도움 정도가 작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진(2019)은 산재보험패널조사 1~5차(2013~2017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으로 나누어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일상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요양종결 후 3~5년 차에서, 자기효능감은 요양종결 후 2~4년 차에서 시간에 따른 효과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일상생활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인 경우, 취업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

고 느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취업한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건강행태를 실천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한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건강행태를 실천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여부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8>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 요약

저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요내용
윤조덕외 (1998)	신체기능, 심리적, 사회환경적요인	삶의 만족도 (8개영역)	신체적 요인보다는 장애에 대한 수용시거나 장애에 대한 인식정도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침
안성아외 (2016)	심리사회적, 경제적, 건강관련요인	생활만족도 (6문항, Likert척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근로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
양경진 (2019)	인구사회학적, 산업재해, 직업경제적, 건강 관련 요인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취업여부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

#### 나.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살펴본 연구로 2008년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을 이용하여 산재장애인의 취업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한 전보영 외(2010)의 연구는 직업복귀 상황에 따라 ‘원직복귀자, 자의퇴사자, 타의퇴사자’로 구분하였고 원직복귀자의 생활만족도가 타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했다. 생활만족도는 여성일 때, 시도에 거주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이고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활동과 참여 수행능력 점수가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미취업에 비해 취업상태일 경우 생활만족

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애선(2018)은 2015년 3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재해 이후 원직장으로의 복귀가 아닌 타직장으로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한달 평균 임금이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임시직/일용직보다 상용직일 경우, 업무적응정도가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김경희, 송진영(2017)은 제1차에서 제3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재요양 이후 장애를 가진 현재 취업상태인 산업재해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태변화와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미취업에서 원직장 복귀로 전환된 경우만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미취업에서 재취업으로 전환된 경우와 원직장 복귀에서 재취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2-9> 경제적 요인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저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요내용
전보영외 (2010)	장애발생후직업복귀 상황,인구사회학적, 장애및건강관련요인	취업여부, 생활만족도	장애발생 후 원직복귀가 가능했던 군이 현재의 취업률과 생활만족도가 자의회사 및 타의 회사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
김경희외 (2017)	경제활동,사회경제적 지위	취업중인 산재장애근로자의 생활만족도	미취업에서 원직장 복귀로 전환된 경우, 사회경제적지위는 하층에서 중층 이상으로 변화된 경우와 중층 이상을 유지한 경우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
박애선 (2018)	인구사회학적,재취업 조직환경,심리사회적 요인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한달 평균 임금이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

#### 다.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요인과 관련해서 김선미, 김은하(2015)는 제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비법정 복리후생, 근로기간, 취업상태, 배우자유무, 재활서비스 필요성 정도, 사회적지지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심리사회적요인 중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확인되었다. 김영춘(2018)은 제3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재 근로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관계 등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산재 근로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관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계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는 다른 변인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자아존중감을 느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날수록,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조성희, 김경휘(2019)는 산재근로자의 삶의 만족 변화에 사회관계가 중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산재보험패널조사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산재근로자의 삶의 만족과 사회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모형 분석결과는 산재근로자가 초기에 사회관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고,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속도가 삶의 만족 변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사회관계의 초기치가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이 감소하는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소희(2020)는 제2차 코호트 제2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성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만족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여성 산재근로자의 일

상생활 만족도는 2.75점으로 산재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보다 낮은 점수이고,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적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표 2-10> 심리·사회적 요인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저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요내용
김선미외 (2015)	인구사회학적, 산재, 사업장, 심리사회적 요인	삶의 질 (6문항, Likert척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그 다음은 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순
김영춘 (2018)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관계(매개)	삶의 질 (7문항, Likert척도)	사회적 관계는 매개역할을 하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는 다른 변인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조성희외 (2019)	사회관계	삶의 만족 (6문항, Likert척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수준과 사회관계 수준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사회관계의 초기치가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임소희 (2020)	인구학적, 건강관련, 신체적, 심리적 요인	일상생활 만족도 (7문항, Likert척도)	자아존중감이 높고,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적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 증가

#### 라. 재활프로그램 효과성 관련 연구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장유미, 엄동문(2015)은 의료재활서비스와 심리사회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만족도가 어떻게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시된 3가지 모델에 대한 변인간의 관계는 SPSS Macro 및 Sobel 방법을 적용하여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와 일상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직업재활서비스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리사회적재활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를 평균 중심화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의료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면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고,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면 일상생활만족이 높아지지만(완전매개효과), 심리사회재활서비스의 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낮은 영역에서 높아질수록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가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영향에서 시너지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지원(2017)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직업재활서비스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직업재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산재근로자의 요양종결 이후 직업복귀 이동경로를 각각 2가지(원·타직복귀 신규, 원·타직복귀 신규 또는 고용유지)로 유형화하였다. 제4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고 임의효과 패널로지모형(Random Effect Panel Logit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서비스 경험은 양적 고용성과인 산재근로자의 원·타직복귀 신규진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질적 고용성과인 고용안정성 부분을 포함한 원·타직복귀 신규 또는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재활프로그램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저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요내용
장유미외 (2015)	의료재활(예측),심리재활(조정),직업재활(매개)	일상생활만족도 (6문항,Likert척도)	의료재활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면 직업재활에 대한 만족증가, 일상생활만족도 상승으로 연결
김지원 (2017)	직업재활서비스경험	직업복귀경로	직업재활서비스는 양적 고용성과인 원직 및 타직으로의 신규 진입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

### 3. 고령 산재근로자

고령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어 양적으로 부족한 실태이다. 우선 고령화에 따른 산재보험제도와 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문성현(2005)은 60세이상 고령산재근로자가 늘어할수록 보험



급여는 증가할 것이고 인구 고령화는 산재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중은, 이찬미(2013)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사회보험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재정불안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험 유족급여제도를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고 최고 보상한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여 생애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중은(2016)은 소득 대체율 분석을 통해 장해급여의 급수별/연령대별 재분배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도 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제도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의 연령대별 조절을 통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김영선 외(2014)는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와 55세 미만 비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환경의 실태와 업무상 사고 및 질병 경험, 건강과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재해 실태를 파악해 고령 근로자의 재해예방 대책을 탐색하였다.

문용필, 원서진(2015)은 제1차 산재보험패널의 조사대상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여 선행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SPSS 19.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요인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있는 자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자원요인을 살펴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근로소득액이 증가할수록, 가계부채액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동산소유자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욕구 요인을 살펴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산재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노후준비에 취약함을 보였다.

조은주 외(2021)는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 중 1차 자료를 활용하여 60세이상 고령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

업과 미취업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성별, 배우자유무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신체적 특성에서는 통증이 없을수록, 업무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취업률이 높았다. 재해사업장 특성에서도 근무기간이 길수록, 월평균임금이 150만원 미만보다 150-250만 원인 경우 취업률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특성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보다 중하층인 경우, 월평균 가구 소비가 높을수록 직업복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결과

고령자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박선숙(2018)은 사회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남소희(2018)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령·세대별로 구분한 연구(정명숙, 2005)에서는 전연령,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경제수준과 물질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윤조덕 외(1998)는 장애에 대한 인식정도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안성아 외(2016)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김영춘(2018)은 사회적 관계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인보다 크다고 하였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고령사회를 맞아 일반 고령자와 노인 대상 삶의 질 연구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산재 근로자 중 고령자 대상 삶의 질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재보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60세이상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제 3 장 연구설계

### 제 1 절 연구대상

#### 1. 고령근로자에 대한 정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연령의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다.<sup>8)</sup>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의거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혜 연령은 65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 노인복지법에 따른 규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국가의 발전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선진국을 기준으로 노인 연령을 65세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와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은 제각각이다. 따라서, 기준 연령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사업체는 정년을 60세로 보고 있어 본연구는 정년 나이를 기준으로 60세 이상을 고령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고령 산재근로자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산업재해, 경제

---

8) “고령자·노인? 부처별 용어·연령기준 ‘따로국밥’...국민도 통계청도 혼선. 2021.11.04. 접속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29001031>

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 패널 2차 코호트 조사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산재보험패널 2차 코호트 조사는 2017년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 75,392명(주소불명, 외국인 및 제주도 거주자 등 제외) 중 3,294명의 표본을 구축하였다. 1차 연도부터 인적 특성, 산재서비스, 산업재해 이후의 경제활동, 건강상태, 삶의 만족, 산재근로자 가구의 현황, 소득과 소비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구축된 데이터이다. 산재보험패널 조사가 진행된 해의 8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 나이가 60세 이상인 자를 고령 산재근로자로, 만 나이가 60세 미만인 자를 비고령 산재근로자로 구분하였다. 3,294명의 표본 중 60세 이상자는 893명이며, 60세 미만자는 2,401명이다.

<표 3-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패널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모집단	2017년 산재 요양종결자 75,392명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등급: 1~3급 88명, 무장해자 650명 할당 후 나머지 등급에서 제곱근비례 배분</li> <li>• 성별, 연령대별: 각 1명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li> </ul>
표본	3,294명
패널교체주기	5년
조사기간	매년 8~10월
조사방법	Tablet PC를 활용한 방문면접 조사(TAPI)
조사내용	개인특성,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재해사업장,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이력, 건강과 생활, 가구 특성 등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승인통계(제439001호)

## 제 2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일상생활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측정지표로 활용된 ‘일상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산재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인(재해 유형,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 경제적 요인(취업여부, 가구소득), 심리·사회적 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관계 교류상태 변화)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은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연령을 조절변수로 하여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정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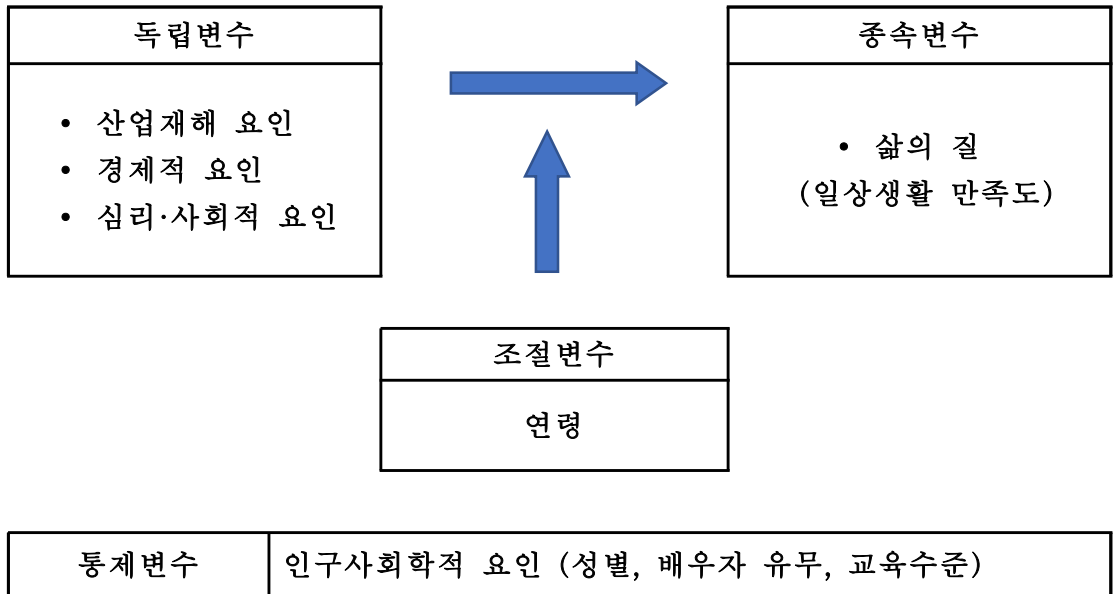
둘째, 고령 산재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의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고령 산재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다섯째, 연령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조절효과를 갖는지 파악한다.

<그림 3-1>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



## 2. 가설의 설정

(가설 1) 산업재해 요인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산업재해유형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장애등급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산업재해 요인(산업재해유형, 장애등급, 재활서비스이용)이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2) 경제적 요인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취업여부는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가구소득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경제적 요인(취업여부, 가구소득)이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가설 3) 심리·사회적 요인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1) 자아존중감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2) 자기효능감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3) 교류변화는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4) 심리·사회적 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이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제 3 절 연구방법과 변수의 정의

####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 패키지 SPSS 26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통계 방법론으로서 첫째,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각 변수 간의 기초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고령자·비고령자 집단별 수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Levene 등분산검정 후 독립표본 t-test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피어슨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전체 산재근로자, 고령자와 비고령자 별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적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2. 변수의 정의

### 가. 종속변수: 삶의 질

#### 1) 일상생활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은 개인이 자기 삶의 환경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를 의미한다. 산재보험 패널조사에서 일상생활 만족도에 해당하는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매우만족’(1)에서 ‘매우불만족’(5)으로 묻는 6문항을 역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 값의 평균값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 나. 조절변수

연령을 30대 이하(1), 40대(2), 50대(3), 60대 이상(4)으로 범주화한 산재보험 패널조사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연령은 조사가 진행된 해의 8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 나이로 하였다.

### 다. 통제변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1), 여(0)으로 코딩 변경하여 분석하였고, 배우자 유무는 혼인을 배우자 있음(1)으로, 미혼, 별거, 이혼, 사별을 배우자 없음(0)으로 재구성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 변수 그대로,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 이상(5)로 코딩하였다.



## 라. 독립변수

### 1) 산업재해 요인

산업재해 요인으로 재해유형(질병/사고),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재해유형은 질병(0), 사고(1)로,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는 미이용(0), 이용(1)으로 재구성하였다. 장애등급 1~3급(1), 4~7급(2), 8~9급(3), 10~12급(4), 13~14급(5), 무장애(6)은 변수 그대로 사용하였다.

### 2) 경제적 요인

경제활동 상태 취업여부는 미취업(0), 취업(1)로 재구성하였다. 가족소득은 한 해 동안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임금소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외 소득(사회보험급여,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조사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 3) 심리·사회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상태변화(친구·이웃·친척)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Scale, RSES)를 전병제(1974)가 번안, 수정한 도구이며,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결과 8번째 문항이 삭제될 경우 0.799에서 0.842로 상승함에 따라 8번째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9개의 문항 중 부정적 자아개념 4문항(3, 5, 9, 10)을 일괄적으로 역코딩 변경하여 총 9개의 문항의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Jacobs와 Rogers(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를 홍혜영(199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17문항,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 6문항의 두 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개의 문항 중 자기효능감 부정개념 12문항(2, 5, 6, 7, 10, 12, 14, 16, 17, 18, 20, 22)을 일괄적으로 역코딩 변경하여 총 23개의 문항의 평균을 내어 사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 교류상태 변화는 친구, 이웃, 친척과 관계 변화를 나타내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소원해졌다(1점)’ 부터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개의 문항의 평균을 내어 사용한다.

## 제 4 장 분석결과

###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에 정리된 바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82.8%(2,728명), 여성 17.2%(566명)이며, 66.7%(2,198명)가 배우자가 있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46.3%(1,525명), 중졸 18.2%(600명) 순으로 많았다. 재해유형은 사고가 94.4%(3,109명)를 차지하였다. 장애등급은 장애등급의 숫자가 낮을수록 중한 장애를 의미하는데, 13~14등급의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31.2%(1,028명)로 가장 많았다. 재활서비스는 서비스이용자가 22.1%(727명)에 해당하였고, 취업자는 62.5%(2,060명)를 차지하였다. 가구소득은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가 43.1%(1,419명)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남성 78.7%(703명), 여성 21.3%(190명)이며, 76.8%(686명)가 배우자가 있었다. 교육수준은 초졸 35.2%(314명)이 가장 많았고, 중졸 27.7%(247명) 순이었다. 재해유형은 사고가 94.6%(845명)이었으며, 장애등급은 10~12등급 30.3%(271명), 13~14등급 28.8%(257명) 순이었다. 재활서비스 이용자는 19.5%(174명)를 차지하였고, 취업자는 43.9%(392명)로 미취업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은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가 43.7%(390명)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60세 미만 비고령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84.3%(2,025명), 여성 15.7%(376명)이며, 63.0%(1,512명)가 배우자가 있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54.2%(1,301명)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이 22.8%(547명)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재해유형은 사고가 94.3%(2,264명)이었으며, 장해등급은 13~14등급 32.1%(771명), 10~12등급 26.1%(626명) 순이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비고령자		고령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여성	376	15.7	190	21.3	566	17.2
	남성	2,025	84.3	703	78.7	2,728	82.8
배우자 유무	무	889	37.0	207	23.2	1,096	33.3
	유	1,512	63.0	686	76.8	2,198	66.7
교육수준	무학	21	0.9	70	7.8	91	2.8
	초졸	179	7.5	314	35.2	493	15.0
	중졸	353	14.7	247	27.7	600	18.2
	고졸	1,301	54.2	224	25.1	1,525	46.3
	대졸이상	547	22.8	38	4.3	585	17.8
재해유형	질병	137	5.7	48	5.4	185	5.6
	사고	2,264	94.3	845	94.6	3,109	94.4
장해등급	1-3급	59	2.5	30	3.4	89	2.7
	4-7급	189	7.9	67	7.5	256	7.8
	8-9급	237	9.9	118	13.2	355	10.8
	10-12급	626	26.1	271	30.3	897	27.2
	13-14급	771	32.1	257	28.8	1,028	31.2
	무장해	519	21.6	150	16.8	669	20.3
재활서비스이용여부	미이용	1,848	77.0	719	80.5	2,567	77.9
	이용	553	23.0	174	19.5	727	22.1
취업여부	미취업	733	30.5	501	56.1	1,234	37.5
	취업	1,668	69.5	392	43.9	2,060	62.5
가구소득	천만원이하	48	2.0	22	2.5	70	2.1
	천만원초과 3천이하	454	18.9	237	26.5	691	21.0
	3천초과 6천이하	1,029	42.9	390	43.7	1,419	43.1
	6천초과	870	36.2	244	27.3	1,114	33.8

N=3,294명(60세미만 2,401명, 60세이상 893명)

재활서비스 이용자는 23.0%(553명)를 차지하였고, 취업자는 69.5% (1,668명)로 고령자보다 취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은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가 42.9%(1,029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6천초과 36.2%(870명)가 차지하였다.

##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표 4-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단위: 만원, 점)

요인	평균	최솟값	최댓값	표준 편차	왜도(표준오차)	첨도(표준오차)
산업재해 유형	0.94	0	1	.230	-3.857(0.043)	12.886(0.085)
장해등급	4.37	1	6	1.283	-.673(0.043)	-.111(0.085)
재활서비스 이용	0.22	0	1	.415	1.348(0.043)	-.184(0.085)
취업여부	0.63	0	1	.484	-.518(0.043)	-1.732(0.085)
가구소득	5,435.47	0	37,209	3353.908	1.789(0.043)	6.701(0.085)
자이존중감	2.9423	1.00	4.00	.49505	-.187(0.043)	-.348(0.085)
자기효능감	3.3905	1.30	4.91	.48613	.201(0.043)	.440(0.085)
교류변화	2.8629	1.00	4.33	.42510	-2.867(0.043)	8.897(0.085)
일상생활 만족도	3.2031	1.00	5.00	.56232	-.238(0.043)	.338(0.085)

<표 4-2>는 주요변수들의 최댓값과 최솟값, 평균과 표준 편차 등 기술통계를 정리한 표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상생활 만족도는 최소 1.00에서 최대 5.00이며, 평균은 3.20으로 일상생활 만족도의 중간점수인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20세 이상인 성인을 대

상으로 Likert 5점 단일척도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박선숙, 2019, 한국복지패널자료 이용)의 평균 3.57과 비교하면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요인에서 산업재해유형은 평균 0.94, 최솟값 0, 최댓값 1이고, 장해등급은 평균 4.37, 최솟값 1, 최댓값 6이었으며, 재활서비스이용은 평균 0.22, 최솟값 0, 최댓값 1이었다. 경제적 요인에서 취업여부의 평균은 0.63, 최솟값 0, 최댓값 1이었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평균 5,435만원, 최솟값 0, 최댓값 37,209만원이고 왜도는 1.789로 가구소득의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심리·사회적 요인에서 자아존중감은 Likert 4점 척도에서 평균 2.96으로 '보통이다'와 '대체로 그렇다' 사이에서 '대체로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Likert 5점 척도에서 평균 3.43으로 중간점수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류변화는 왜도 -2.867, 첨도 8.897, Likert 5점 척도에서 평균 2.88로 '다소 소원해진 편이다'와 '변화가 없다'의 사이에서 '변화가 없다'에 다른 요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있다.

주요 변인의 비교령자와 고령자 집단별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3>과 같다.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등 각 요인의 두 집단 평균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Levene 등분산검정 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요인에 따른 고령자와 비교령자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산업재해유형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유무( $t=-8.037$ ,  $p<.001$ )에 있어서만 비교령자에 비하여 고령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높았다. 성별( $t=3.604$ ,  $p<.001$ ), 교육수준( $t=27.888$ ,  $p<.001$ ), 장해등급( $t=3.641$ ,  $p<.001$ ),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t=2.245$ ,  $p<.05$ ), 취업여부( $t=13.396$ ,  $p<.001$ ), 가구소득( $t=6.029$ ,  $p<.001$ ), 자아존중감( $t=3.668$ ,  $p<.001$ ), 자기효능감( $t=7.604$ ,  $p<.001$ ), 교류변화( $t=2.704$ ,  $p<.01$ ), 일상생활만족도( $t=2.890$ ,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비고령자의 남성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도 비고령자가 높으며, 장애등급은 비고령자의 장애 정도가 더 낮았다. 고령자는 재활서비스이용, 취업상태, 가구소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 일상생활만족도가 비고령자보다 낮았다. 특히 비고령자는 고령자보다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자기효능감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고령자 여부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단위: 만원, 점)

요인	비고령자(N=2,401)		고령자(N=893)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0.84	0.364	0.79	0.409	3.604	.000
배우자유무	0.6297	0.48298	0.7682	0.422	-8.037	.000
교육수준	3.91	0.862	2.83	1.028	27.888	.000
산업재해 유형	0.94	0.232	0.95	0.226	-0.366	.714
장애등급	4.42	1.281	4.24	1.280	3.641	.000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0.23	0.421	0.19	0.396	2.245	.025
취업여부	0.69	0.461	0.44	0.497	13.396	.000
가구소득	5637.11	3445.856	4893.32	3029.093	6.029	.000
자아존중감	2.9612	0.49854	2.8913	0.48210	3.668	.000
자기효능감	3.4280	0.49296	3.2897	0.45236	7.604	.000
교류변화	2.8759	0.40718	2.8279	0.46836	2.704	.007
일상생활 만족도	3.2204	0.56284	3.1568	0.55859	2.890	.004

연령별 평균 일상생활만족도는 아래 <표 4-4>와 같이 30대 이하가 가장 높고, 그다음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다.

<표 4-4> 연령별 일상생활만족도

연령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30대이하	541	3.3466	.53324	1.17	5.00
40대	682	3.2270	.56092	1.33	5.00
50대	1178	3.1586	.56771	1.00	5.00
60대이상	893	3.1568	.55859	1.00	4.67
전체	3294	3.2031	.56232	1.00	5.00



## 제 2 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척도의 신뢰성이란 한 대상을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가지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설문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Cronbach  $\alpha$  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고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0.7 \leq \alpha \leq 0.9$  이면 바람직하다 보고  $0.9 \leq \alpha$  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고부담 시험에 권장되는 수준이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아존중감의 Cronbach  $\alpha$  계수는 0.799였으며, 8번째 문항을 삭제할 경우 Cronbach  $\alpha$  계수는 0.842 였다. 10문항으로 측정할 때보다 9문항으로 측정할 경우 0.0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10)</sup> 따라서, 자아존중감 8번째 문항을 제거하고 전체 9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 측정 결과 값은 <표4-5>와 같다.

<표 4-5>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alpha$ )
독립변수	자아존중감	9	.842
	자기효능감	23	.917
종속변수	교류변화	3	.902
	일상생활만족도	6	.835

9) 8번 문항인 “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의 wish가 내포하는 소망(wish)에 대한 의미가(영어의 가정법의 의미)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Farruggia, Chen, Greenberger, Dmitrieva, & Macek. 2004). (이자영외. 2009에서 재인용)

10) 이 문항에 대해서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직역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래엔 나는 나를 더 존중하고 싶다” 혹은 “나는 나를 더 존중하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번역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자영외. 2009)

### 제 3 절 변수간 상관관계

연속성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가 널리 사용된다. 상관계수는 -1에서 1의 값을 갖는 통계량으로 1의 값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다른 변수의 값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1의 값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다른 변수의 값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만일 상관계수가 0의 값인 관계를 갖게 되면 한 변수의 값이 변화가 다른 변수의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길곤외, 2015) 상관계수(r)값은 0.7 이상이면 강한 상관, 0.3~0.7은 중등 상관, 0.1~0.3은 약한 상관이라고 해석한다. 산재근로자(전체, 고령, 비고령)를 대상으로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6>, <표 4-7>, <표 4-8>과 같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687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봐야 하는 .80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산재근로자의 경우 일상생활만족도는 성별,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연령과 유의수준에서 (-)의 상관관계를 갖고,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장애등급, 취업여부, 가구소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와 유의수준에서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 산재근로자의 경우 일상생활만족도는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장애등급, 취업여부, 가구소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와 유의수준에서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와 일상생활만족도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515, .425, .364로 나타났다.

비고령 산재근로자의 경우 일상생활만족도는 성별,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와 유의수준에서 (-)의 상관관계를 갖고,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장애등급, 취업여부, 가구소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와 유의수준에서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산재근로자)

요인	일상생활 만족도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산업재해 유형	장해등급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취업여부	가구소득	자이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	연령
일상생활 만족도	1												
성별	-.035*	1											
배우자유무	.214***	.037*	1										
교육수준	.165***	.117***	-.031	1									
산업재해 유형	.017	-.006	-.052**	-.038*	1								
장해등급	.127***	-.112***	-.063***	.066***	.058***	1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062***	-.018	-.013	.006	.015	-.229***	1						
취업여부	.289***	.055**	.059***	.201***	.056**	.272***	-.101***	1					
가구소득	.173***	.106***	.209***	.096***	-.052**	-.335***	.086***	.044*	1				
자이존중감	.521***	-.063***	.111***	.148***	.026	.212***	-.060***	.289***	.087***	1			
자기효능감	.422***	.022	.051**	.173***	.045**	.189***	-.051**	.277***	.086***	.674**	1		
교류변화	.317***	-.048**	.021	.060***	.098***	.327***	-.067***	.305***	-.007	.322***	.277***	1	
연령	-.111***	-.100***	.253***	-.531***	-.022	-.119***	.001	-.227***	-.028	-.112***	-.159***	-.060***	1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7>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고령 산재근로자)

요인	일상생활 만족도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산업재해 유형	장해등급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취업여부	가구소득	자이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
일상생활 만족도	1											
성별	.020	1										
배우자유무	.209***	.292***	1									
교육수준	.130***	.166***	.135***	1								
산업재해 유형	.040	-.039	-.060	-.054	1							
장해등급	.123***	-.116***	-.077*	.049	.057	1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050	.007	.029	.011	-.033	-.170***	1					
취업여부	.242***	.024	.021	.072*	.101**	.234***	-.036	1				
가구소득	.152***	.201***	.233***	.121***	-.064	-.347***	.068*	.006	1			
자이존중감	.515***	.000	.142***	.189***	.033	.228***	-.037	.263***	.093**	1		
자기효능감	.425***	.051	.060	.209***	.058	.181***	-.042	.243***	.056	.687***	1	
교류변화	.364***	-.080*	-.004	.053	.107**	.355**	-.057	.253***	.007	.339***	.282***	1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8>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비고령 산재근로자)

요인	일상생활 만족도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산업재해 유형	장해등급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취업여부	가구소득	자이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
일상생활 만족도	1											
성별	-.063**	1										
배우자유무	.228***	-.043*	1									
교육수준	.175***	.063**	-.005	1								
산업재해 유형	.010	.008	-.051*	-.033	1							
장해등급	.124***	-.118***	-.048*	.038	.059**	1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070***	-.031	-.019	-.024	.032	-.253***	1					
취업여부	.304***	.048*	.119***	.124***	.044*	.278***	-.142***	1				
가구소득	.175***	.064**	.223***	.032	-.048*	-.343***	.087***	.028	1			
자이존중감	.521***	-.095***	.113***	.113***	.024	.202***	-.072***	.290***	.077***	1		
자기효능감	.418***	-.001	.071***	.100***	.043*	.183***	-.061**	.262***	.080***	.668**	1	
교류변화	.296***	-.038	.040	.035	.096***	.313***	-.075***	.325***	-.019	.314***	.272***	1

• \* $p < .05$ , \*\* $p < .01$ , \*\*\* $p < .001$

## 제 4 절 가설의 검증 및 연구결과 분석

### 1.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9>과 <표 4-10>과 같다.

<표 4-9>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구분		B	S.E	$\beta$	t	공차한계	VIF	
상수(Constant)		.912	.095		9.590			
통계 변수	성별	-.062	.021	-.042**	-2.886	.947	1.056	
	배우자유무	.187	.018	.157***	10.344	.857	1.167	
	교육수준	.026	.009	.048**	2.853	.689	1.452	
독립 변수	산재 요인	산업재해유형	.000	.035	.000	-.006	.980	1.021
		장해등급	-.006	.007	-.014	-.827	.695	1.439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038	.020	-.028	-1.958	.941	1.063
	경제 요인	취업여부	.103	.018	.089***	5.600	.784	1.275
		가구소득	1.606E-5	.000	.096***	6.139	.806	1.241
	심리 사회 요인	자아존중감	.392	.022	.345***	17.541	.506	1.976
		자기 효능감	.109	.022	.094***	4.883	.526	1.901
		교류변화	.192	.021	.145***	9.210	.787	1.271
	조절 변수	연령	-.025	.010	-.046**	-2.621	.635	1.575

$R^2 = 0.356$ , 수정된  $R^2 = 0.354$

F=151.250,  $p < .001$ , Durbin-Watson=1.781

• \* $p < .05$ , \*\* $p < .01$ , \*\*\* $p < .001$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바, 변수 간 VIF 지수는 1.021~1.976으로 10미만이며, 공차한계는 0.506~0.980인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보기 위해 Durbin-Watson 결과를 살펴보았다. Durbin-Watson 값은 0~4까지의 값을 가지며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없고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결과 값 1.781은 2에 가까운 값으로 독립성의 가정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상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0.356로 나타나, 이 회귀모델은 35.6%의 설명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결과는 성별 ( $t=-2.886$ ,  $p<.01$ ), 배우자유무( $t=10.344$ ,  $p<.001$ ), 교육수준( $t=2.853$ ,  $p<.01$ ), 취업여부( $t=5.600$ ,  $p<.001$ ), 가구소득( $t=6.139$ ,  $p<.001$ ), 자아존중감( $t=17.541$ ,  $p<.001$ ), 자기효능감( $t=4.883$ ,  $p<.001$ ), 교류변화( $t=9.210$ ,  $p<.001$ ), 연령( $t=-2.621$ ,  $p<.01$ )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는 각 변인들이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아존중감( $\beta=.345$ )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다음은 배우자유무( $\beta=.157$ ), 교류변화( $\beta=.145$ ), 가구소득( $\beta=.096$ ), 자기효능감( $\beta=.094$ ), 취업여부( $\beta=.089$ ), 교육수준( $\beta=.048$ ), 연령( $\beta=-.046$ ), 성별( $\beta=-.042$ ) 순이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0>과 같다. 통제변수와 산재요인을 투입한 모형1의 적합성은  $F=58.681$ ,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설명력은 9.7%로 나타났다.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장애등급, 재활서비스이용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산재요인, 경제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2의 설명력은 16.8%이었으며 ( $F=82.712$ ,  $p<.001$ ), 모형1보다 설명력이 7.1% 증가하였다. 모형1과 마찬가지로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장애등급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재활서비스이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취업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계적 회귀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상수(Constant)		2.467		2.367		.790		.912		
통제 변수	성별	-.051**	-3.045	-.072***	-4.460	-.039**	-2.737	-.042**	-2.886	
	배우자 유무	.230***	13.813	.181***	11.081	.145***	10.007	.157***	10.344	
	교육수준	.172***	10.261	.113***	6.881	.070***	4.799	.048**	2.853	
독립 변수	산재 요인	재해유형	.029	1.771	.021	1.308	.001	.057	.000	-.006
		장해등급	.114***	6.610	.110***	6.016	-.011	-.660	-.014	-.827
		재할 서비스이용	-.036*	-2.089	-.029	-1.774	-.027	-1.903	-.028	-1.958
	경제 적 요인	취업여부			.219***	12.781	.094***	6.007	.089***	5.600
		가구소득			.163***	9.276	.098***	6.257	.096***	6.139
	심리·사 회적 요인	자아 존중감					.345***	17.518	.345***	17.541
		자기 효능감					.097***	5.004	.094***	4.883
교류변화						.144***	9.113	.145***	9.210	
조절 변수	연령							-.046**	-2.621	
$R^2$ /수정된 $R^2$		.097/.095		.168/.166		.355/.353		.356/.354		
$\Delta R^2/\Delta F$		.097/58.681***		.071/139.924***		.187/317.350***		.001/6.868**		
F		58.681***		82.712***		164.083***		151.250***		

• \* $p < .05$ , \*\* $p < .01$ , \*\*\* $p < .001$

모형3은 통제변수, 산재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투입하였는데, 설명력은 모형2보다 18.7% 증가한 35.5%로 나타났다( $F=164.083$ ,  $p < .001$ ). 모형3에서는 모형2에서 유의미했던 장해등급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 경제적요인(취업여부, 가구소득), 심리·사회적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를 포함한 모형4의 설명력은 35.6%였으며



( $F=151.283$ ,  $p<.001$ ), 모형3보다 설명력이 0.1% 증가하였다. 모형3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수(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경제적요인(취업여부, 가구소득), 심리·사회적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절변수인 연령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회적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자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해유형, 장애등급, 재활서비스이용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을 살펴보면, 산업재해 요인으로 산업재해유형,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요인으로 취업여부, 가구소득,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는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 가설1-1, 1-2, 1-3은 기각하고, 가설2, 가설2-1, 2-2, 가설3, 가설3-1, 3-2, 3-3은 채택하였다.

## 2.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고령 산재근로자와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 <표 4-11>, <표 4-12>와 같이 비고령 산재근로자와 고령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모형 1에는 산업재해 요인을 모형 2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였고, 모형 3은 심리·사회적 요인을 투입하여 고령(비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각 모형별로 고려된 변수들이 모형적합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4-11> 비고령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N=2,401)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beta$	t	$\beta$	t	$\beta$	t	
상수(Constant)		2.492		2.300		0.747		
통제 변수	성별	-.054**	-2.734	-.077***	-4.115	-.040*	-2.408	
	배우자 유무	.238***	12.241	.170***	8.834	.142***	8.341	
	교육수준	.164***	8.433	.138***	7.408	.107***	6.429	
독립 변수	산재 요인	재해유형	.022	1.151	.016	.863	-.001	-.089
		장해등급	.113***	5.569	.104***	4.886	.000	.002
		재활서비스 이용	-.034	-1.669	-.019	-1.011	-.019	-1.121
	경제 적요 인	취업여부			.238***	12.026	.109***	5.945
		가구소득			.170***	8.359	.110***	6.033
	심리 ·사 회적 요인	자아 존중감					.351***	15.363
		자기 효능감					.092***	4.122
	교류변화					.118***	6.440	
$R^2$ /수정된 $R^2$		.100/.098		.182/.179		.361/.358		
$\Delta R^2/\Delta F$		.100/44.348***		.082/119.126***		.180/223.947***		
F		44.348***		66.324***		122.800***		

• \* $p < .05$ , \*\* $p < .01$ , \*\*\* $p < .001$

먼저, 비고령 산재근로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산업재해 요인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10.0%로 나타났다(F=44.348,  $p < .001$ ).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장해등급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산업재해 요인, 경제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은 18.2%이었으며(F=66.324,  $p < .001$ ), 모형 1에 비하여 설명력이 8.2% 증가하였다.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장해등급,

취업여부, 가구소득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 3은 심리·사회적 요인을 추가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122.800\%$ ,  $p<.001$ ), 성별( $t=-2.408$ ,  $p<.05$ ), 배우자유무( $t=8.341$ ,  $p<.001$ ), 교육수준( $t=6.429$ ,  $p<.001$ ), 취업여부( $t=5.945$ ,  $p<.001$ ), 가구소득( $t=6.033$ ,  $p<.001$ ), 자아존중감( $t=15.363$ ,  $p<.001$ ), 자기효능감( $t=4.122$ ,  $p<.001$ ), 교류변화( $t=6.440$ ,  $p<.001$ )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있고, 취업한 상태, 가구소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비교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36.1%로 나타났다

비교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자아존중감, 배우자유무, 교류변화, 가구소득, 취업여부, 교육수준, 자기효능감, 성별 순이었다.

다음으로,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산업재해 요인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7.7%( $F=12.383$ ,  $p<.001$ )이며,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장애등급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은 14.0%이었으며( $F=17.931$ ,  $p<.001$ ), 모형 1 보다 설명력이 6.20% 증가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장애등급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취업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산재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투입하였는데, 설명력은 모형 2 보다 21.0% 증가한 35.0%로 나타났다( $F=43.128$ ,  $p<.001$ ).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성별과 교육수준, 장애등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유무, 취업여부, 가구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심

리·사회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 모두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beta=.319$ ,  $p<.001$ ), 교류변화( $\beta=.209$ ,  $p<.001$ ), 배우자유무( $\beta=.145$ ,  $p<.001$ ), 자기효능감( $\beta=.119$ ,  $p<.01$ ), 취업여부( $\beta=.080$ ,  $p<.01$ ), 가구소득( $\beta=.076$ ,  $p<.05$ ) 순이었다.

<표 4-12> 고령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N=893)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beta$	t	$\beta$	t	$\beta$	t	
상수(Constant)		2.490		2.369		0.732		
통제변수	성별	-.045	-1.328	-.069*	-2.069	-.034	-1.154	
	배우자 유무	.221***	6.517	.190***	5.703	.145***	4.948	
	교육수준	.105**	3.170	.078*	2.432	.007	0.243	
독립변수	산재요인	재해유형	.050	1.529	.035	1.117	.006	0.219
		장해등급	.121***	3.637	.126***	3.605	-.038	-1.166
		재활서비스이용	-.035	-1.057	-.036	-1.149	-.033	-1.209
	경제적요인	취업여부			.199***	6.128	.080**	2.744
		가구소득			.160***	6.128	.076*	2.464
	심리·사회적요인	자아존중감					.319***	8.127
		자기효능감					.119**	3.134
교류변화						.209***	6.762	
$R^2$ /수정된 $R^2$		.077/.071		.140/.132		.350/.342		
$\Delta R^2/\Delta F$		.077/12.383***		.062/31.977***		.210/95.057***		
F		12.383***		17.931***		43.128***		

• \* $p<.05$ , \*\* $p<.01$ , \*\*\* $p<.001$

### 3. 산재근로자 삶의 질과 연령의 조절효과 검증

산업재해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과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결과는 <표 4-13>, <표 4-14>, <표 4-15>, <표 4-16>과 같다.

먼저 모형 1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 따른 통제변수와 산업재해, 경제적, 심리·사회적 요인의 변수를 투입하여, 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 그리고 모형 2에서는 연령과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연령을 추가로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본 연구의 산업재해 요인(재해유형, 장애등급, 재활서비스이용), 경제적 요인(취업여부, 가구소득), 심리·사회적 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과 조절변수인 연령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해보았다.

모형 1의 설명력은 35.5%로 나타났으며, 모형 1의 F 검증을 통해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1의 F값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추정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기존 모형 1에 투입되었던 변수와 조절변수인 연령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2에서의 설명력은 35.6%로 나타나, 모형 1보다 설명력이 0.1% 증가하였다. 모형 2의 F 검증을 통해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본 결과, 모형 2의 F값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추정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과 동일하게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성별( $\beta = -.042$ ,  $p < .01$ ), 배우자 유무( $\beta = .157$ ,  $p < .001$ ), 교육수준( $\beta = .048$ ,  $p < .01$ ), 취업여부( $\beta = .089$ ,  $p < .001$ ), 가구소득( $\beta = .096$ ,  $p < .001$ ), 자아존중감( $\beta = .345$ ,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094$ ,  $p < .001$ ), 교류변화( $\beta = .145$ ,  $p < .001$ )를 확인하였다. 조절변수인 연령( $\beta = -.046$ ,  $p < .01$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조절변수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속변수 삶의 질(일상생활만족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모형 2에서 보여준 결과는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표 4-13> 산재요인과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1)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790	.083		.912	.095		.852	.138		
성별	-.059	.021	-.039**	-.062	.021	-.042**	-.062	.021	-.042**	
배우자 유무	.173	.017	.145***	.187	.018	.157***	.187	.018	.157***	
교육수준	.038	.008	.070***	.026	.009	.048**	.026	.009	.048**	
산재요인	재해유형	.002	.035	.001	0	.035	.000	.062	.11	.025
	장해등급	-.005	.007	-.011	-.006	.007	-.014	-.006	.007	-.014
	재활서비스이용	-.037	.02	-.027	-.038	.02	-.028	-.038	.02	-.028*
경제적요인	취업여부	.109	.018	.094***	.103	.018	.089***	.103	.018	.089***
	가구소득	1.64E-05	0	.098***	1.61E-05	0	.096***	1.60E-05	0	.096***
심리·사회적요인	자아존중감	.392	.022	.345***	.392	.022	.345***	.392	.022	.345***
	자기효능감	.112	.022	.097***	.109	.022	.094***	.109	.022	.094***
	교류변화	.19	.021	.144***	.192	.021	.145***	.193	.021	.146***
연령				-.025	.01	-.046**	-.004	.037	-.007	
재해유형*연령							-.022	.037	-.047	
$R^2$ / 수정된 $R^2$	.355/.353			.356/.354			.356/.354			
$\Delta R^2/\Delta F$	.355/164.083***			.001/6.868**			.000/355			
F	164.083***			151.250***			139.616***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14> 산재요인과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2)

구분	모형3			모형3			
	B	S.E	$\beta$	B	S.E	$\beta$	
상수	.843	.123		.912	.096		
성별	-.062	.021	-.042**	-.062	.021	-.042**	
배우자 유무	.187	.018	.157***	.187	.018	.157***	
교육수준	.026	.009	.048**	.026	.009	.048**	
산재 요인	재해유형	-.001	.035	0	0	.035	0
	장해등급	.008	.018	.019	-.006	.007	-.014
	재활서비스이용	-.037	.02	-.028	-.04	.056	-.03
경제적 요인	취업여부	.103	.018	.089***	.103	.018	.089***
	가구소득	1.61E-05	0	.096***	1.61E-05	0	.096***
심리· 사회적 요인	자아 존중감	.392	.022	.345***	.392	.022	.345***
	자기 효능감	.109	.022	.094***	.109	.022	.094***
	교류변화	.194	.021	.147***	.192	.021	.145***
연령	-.001	.029	-.002	-.025	.01	-.046*	
장해등급 *연령	-.005	.006	-.053				
재활서비스이용* 연령				.001	.019	.001	
$R^2$ /수정된 $R^2$		.356/.354			.356/.354		
$\Delta R^2/\Delta F$		.000/.778			.000/.001		
F		139.666***			139.573***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15> 경제요인과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구분		모형3			모형3		
		B	S.E	$\beta$	B	S.E	$\beta$
상수		.906	.101		.862	.101	
성별		-.062	.021	-.042**	-.061	.021	-.041**
배우자 유무		.187	.018	.156***	.187	.018	.157***
교육수준		.026	.009	.048**	.027	.009	.049**
산재 요인	재해유형	-7.77E-05	.035	0	-.001	.035	0
	장해등급	-.006	.007	-.014	-.006	.007	-.014
	재활서비스이용	-.038	.02	-.028	-.039	.02	-.028*
경제적 요인	취업여부	.111	.05	.095*	.102	.018	.088***
	가구소득	1.61E-05	0	.096***	2.51E-05	0	.149***
심리· 사회적 요인	자아 존중감	.392	.022	.345***	.393	.022	.346***
	자기 효능감	.109	.022	.094***	.109	.022	.094***
	교류변화	.192	.021	.145***	.192	.021	.146***
연령		-.023	.014	-.043	-.008	.016	-.014
취업여부 *연령		-.003	.016	-.007			
가구소득 *연령					-3.36E-06	0	-.065
$R^2$ /수정된 $R^2$		.356/.354			.357/.354		
$\Delta R^2/\Delta F$		.000/.026			.001/1.945		
F		139.576***			139.805***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16> 심리·사회요인과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구분	모형3			모형3			모형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92	.165		.822	.181		1.281	.179		
성별	-.062	.021	-.042**	-.062	.021	-.042**	-.061	.021	-.041**	
배우자 유무	.187	.018	.157***	.187	.018	.156***	.188	.018	.158***	
교육수준	.026	.009	.048**	.027	.009	.049**	.026	.009	.047**	
산재요인	재해유형	0	.035	0	-5.96E-05	.035	0	-.001	.035	0
	장해등급	-.006	.007	-.014	-.006	.007	-.014	-.007	.007	-.015
	재활서비스이용	-.038	.02	-.028	-.038	.02	-.028	-.04	.02	-.029*
경제적요인	취업여부	.103	.018	.089***	.103	.018	.089***	.103	.018	.089***
	가구소득	1.61E-05	0	.096***	1.61E-05	0	.096***	1.59E-05	0	.095***
심리·사회적요인	자아존중감	.39	.048	.343***	.393	.022	.346***	.392	.022	.345***
	자기효능감	.109	.022	.094***	.134	.048	.116**	.108	.022	.094***
	교류변화	.192	.021	.145***	.193	.021	.146***	.067	.056	.051
연령	-.028	.048	-.051	.007	.056	.013	-.152	.053	-.279**	
자아존중감*연령	.001	.016	.005							
자기효능감*연령				-.009	.016	-.059				
교류변화*연령							.044	.018	.248*	
$R^2$ /수정된 $R^2$	.356/.354			.356/.354			.357/.355			
$\Delta R^2/\Delta F$	.000/.003			.000/.338			.001/5.933*			
F	139.574***			139.614***			140.282***			

• \* $p < .05$ , \*\* $p < .01$ , \*\*\* $p < .001$

모형 3에서는 기존 모형 2에 투입되었던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산업재해, 경제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각각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의 분석결과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과 교류변화의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변수가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는 위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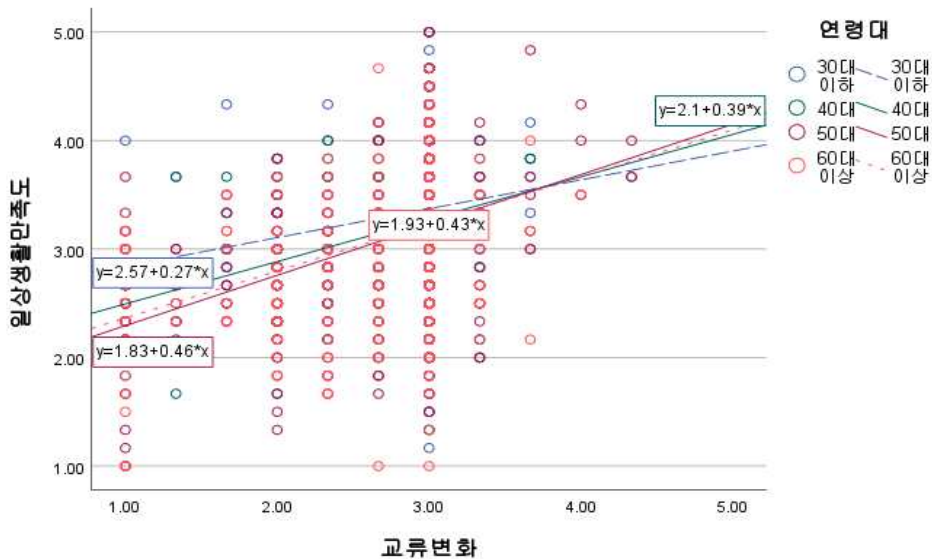
산업재해 요인에서 재해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경우, 모형 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39.616$ ,  $p<.001$ ) 모형 2보다 설명력의 증가는 없었다. 장애등급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경우, 모형 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39.666$ ,  $p<.001$ ) 모형 2에 비하여 설명력의 증가는 없었다. 재활서비스이용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경우, 모형 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39.573$ ,  $p<.001$ ) 모형 2보다 설명력의 증가는 역시 없었다. 재해유형, 장애등급 및 재활서비스이용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요인에서 취업여부와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경우, 모형 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39.616$ ,  $p<.001$ ) 설명력은 35.6%로 모형 2보다 설명력의 증가는 없었다. 가구소득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경우, 모형 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39.805$ ,  $p<.001$ ), 이전 단계에 비해 모형의 설명력이 0.1% 증가하였다. 취업여부 및 가구소득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사회적 요인에서 자아존중감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경우, 모형 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39.574$ ,  $p<.001$ ) 설명력은 모형 2보다 증가는 없었다. 자기효능감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경우, 모형 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39.614$ ,  $p<.001$ ), 모형 2보다 설명력의 증가는 없었다.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교류변화와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경우, 모형 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40.282, p<.001$ ), 이전 단계보다 모형의 설명력이 0.1% 증가하여 추정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모형 3에서 연령( $\beta=-.279, p<.01$ )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류변화와 연령의 상호작용항( $\beta=.248, p<.05$ )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산재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류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이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1> 연령별 교류변화와 삶의 질(일상생활만족도)의 상관 그래프



위 <그림 4-1>은 삶의 질(일상생활만족도)을 교류변화와 비교한 회귀계수 그래프를 연령별로 분류한 것이다. 연령별 회귀식을 보면 30대이하는  $y=2.57+0.27x$ , 40대는  $y=2.1+0.39x$ , 50대는  $y=1.83+0.46x$ , 60대 이상은  $y=1.93+0.43x$ 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크기는 30대, 40대, 60대이상, 50대 순이며, 30대 이하와 40대보다 50대, 60대 이상의 그래프 기울기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연령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조절효과를 갖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두고, 산업재해요인(재해유형, 장애등급, 재활서비스이용), 경제적 요인(취업여부, 가구소득), 심리·사회적 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주관적인 삶의 질 측정지표인 패널조사 항목의 일상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일상생활만족도) 수준은 5점 척도 수준에서 평균 3.20으로 중간점수인 3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3.34점, 40대 3.22점, 50대 3.15점, 60대 이상 3.15점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삶의 질(일상생활만족도) 점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선숙 2018)의 평균점수 3.51점(5점 척도)과 비교하면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평균점수는 0.36점이 낮다.

둘째,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전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결과는 산업재해 요인으로 산업재해유형,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요인으로 취업여부, 가구소득, 심리·사회적 요인

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는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 가설1-1, 1-2, 1-3은 기각하고, 가설2, 가설2-1, 2-2, 가설3, 가설3-1, 3-2, 3-3은 채택하였다.

<표 5-1> 산재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설 검증결과

가 설		결 과
<b>1</b>	<b>산업재해 요인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b>	
1-1	산업재해유형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	장해등급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3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b>2</b>	<b>경제적 요인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b>	
2-1	취업여부는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가구소득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b>3</b>	<b>심리·사회적 요인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b>	
3-1	자아존중감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자기효능감은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	교류변화는 산재 근로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셋째, 산재근로자를 고령자와 비고령자로 나누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계적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비고령 산재근로자와 고령 산재근로자의 경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 비교는 아래 <표 5-2>와 같다. 비고령 산재근로자의 경우 고령자와 달리 교육수준과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취업여부, 가구소득이 자기효능감보다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 산재근로자의 경우 특히 주목할 점은 비고령 산재근로자보다 교류변화( $\beta=.209$ )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요인인 취업여부, 가구소득보다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류변화가 삶의 질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고령·비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 비교

순위	고령 산재근로자	비고령 산재근로자
1	자아존중감( $\beta=.319$ )	자아존중감( $\beta=.351$ )
2	교류변화( $\beta=.209$ )	배우자유무( $\beta=.142$ )
3	배우자유무( $\beta=.145$ )	교류변화( $\beta=.118$ )
4	자기효능감( $\beta=.119$ )	가구소득( $\beta=.110$ )
5	취업여부( $\beta=.080$ )	취업여부( $\beta=.109$ )
6	가구소득( $\beta=.076$ )	교육수준( $\beta=.107$ )
7		자기효능감( $\beta=.092$ )
8		성별( $\beta=-.040$ )

넷째, 연령의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을 하였다. 산업재해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과 산재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심리·사회적 요인 중 교류변화와 연령의 상호작용항만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교류변화와 연령의 상호작용항( $\beta=.248, p<.05$ )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산재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류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이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1-4, 가설 2-3은 기각하고 가설 3-4의 일부(교류변화)를 채택하였다.

## 제 2 절 정책 제언

본 연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제공이 고령 산재근로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재활서비스 제공률의 향상은 물론 고령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률(19.5%)과 비고령자의 이용률(23.0%)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기본정보가 부족한 고령자의 경우 오프라인의 면대면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 우선 되어 재활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공단 업무 담당자의 세심한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고령 산재근로자의 취업여부는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령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나이 및 상병, 상병부위, 장애정도, 직종, 고용형태, 임금 등을 분석하여 직업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능형 재활추천시스템(근로복지공단, 2020)의 활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산재보험 고령화 정책보다는 고령자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연장 등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고령 산재근로자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만 61세가 되면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받기 시작하여 65세 이후에는 휴업급여의 50/70을 받게 된다.<sup>11)</sup> 공적이전소득을 수령하였던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금액이 높을수록 삶에 만족한다는 연구(남소희 외, 2018)는 물론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요인인 가구소득과 취업여부가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동시장에서 고령인구 비중 증가의 영향으로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sup>12)</sup>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하고 60세 이상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휴업급여 감액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61세에서 65세로 상향하거나 감액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이제는 고령자를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전체적인 사회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이다.

셋째, 고령 산재근로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산재근로자의 특성상 사회심리적 요인이 장애정도나 일상생활 능력 정도와 같은 신체 기능보다 상대적으로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듯이(윤조덕 외, 1998) 고령 산재근로자도 역시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사회적 관계 개선에 목표를 두는 심리 재활프로그램과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더욱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적 사회관계 형성 체계로서의 가족과 친척, 이웃, 공적 사회관계 체계로서의 친목이나 동호회 모임, 종교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조성희 외, 2019). 근로복지공단은 고령 산재근로자와 가족 간 관계를 지원하는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을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제공되는 지역 단위 자조모임, 동호회 활동에 고령 산재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종교기관을 통한 사회활동의 증진과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12)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하다.

다섯째, 고령 산재근로자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을 높 이려는 방안으로 간병료 지급 조건의 완화와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산재근로자 가족 구성원은 산재근로자를 돌보면서 일자리를 포기하는 등 많은 부담을 경험하고 신체적·심리적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며 적극적 요양이 필요한 요양 초기에 간병료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면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 해서 장기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과 근로복지공 단의 재활프로그램 관련 규정 및 계획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고령자 연구는 중고령자, 노인, 베이 비붐 세대 등 계층을 달리하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재근 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고령 산재근로자에 관 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삶의 질 관점에서 산업재해요인, 경제적인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살 펴보고, 60세를 기준으로 고령자와 비고령자를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 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고령 산재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요인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제적 요인과 특히 심리·사회적 요인은 강하게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교류변화의 경우 연령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즉,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관 계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시행한다면 정책의 효과성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전반적인 고령 산재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것으로 산업재해 요인 중 장애등급별, 재활서비스 수혜 종목별 세분화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 범주형 변수를 이용하였으나 더욱 정확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 연속형 변수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이다.

## 참 고 문 헌

<단행본, 보도자료 등>

고용노동부(2020). 「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2021). 「2020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근로복지공단(2020). 「2019년도 근로복지공단통계연보」

근로복지공단(2021). 「2020년도 근로복지공단통계연보」

통계청(2020). 「고령자통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comwel.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고길근, 김대중(2015). SPSS를 이용한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고용노동부(2017). 제5차 산재보험 재할증기계획(2018년~2022년).

근로복지공단(2020.02.12.) 산재노동자 맞춤형 재할계획, 이제는 빅데이터  
를 활용한 인공지능으로

김상균, 권태환, 이문웅, 이정진, 김태성, 조홍식(1996). 21세기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상호 외(2014).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상권). 21세기북스.

장영식 외(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외(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조덕 외(2004). 산재보험 재할사업 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 분석 및 효  
율적 추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외(2005).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재할·복지). 한국노  
동연구원.

한국은행(2017).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요약)

한국경제연구원(2021.02.18.) 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르는데 노인빈곤율은

이미 OECD 1위

한국경제연구원(2021.03.03.) 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  
개국 중 가장 빨라

<논문>

고명철, 최상욱(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  
행정학보, 46(4), 103-126.

고민석(2015). 장애노인의 사회참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  
관적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보건의료산업학  
회지, 9(3), 221-232.

고민석(2019).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수행 장애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보  
건과 복지, 2(1), 27-49.

고민석, 김동주(2014). 경제활동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2), 137-164.

구첼희(2015). 서울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대사  
회와 행정, 25(2), 281-300.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노년학, 20(3), 61-76.

김광배(2017). 산재근로자의 복귀형태와 유지기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경희, 송진영(2017). 장애를 가진 산업재해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사회경  
제적 지위상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케어매니지먼트연구, 22, 93-116.

김미란(2014). 산재환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 ICF모형을 중심으로. 박사  
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김선미, 김은하(2015).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  
과학연구, 26(4), 389-411

- 김수인(2000). 산업재해 환자의 삶의 질, 자살사고 및 우울증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련(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선, 김보형, 김혜민(2014).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근로환경 취약점 연구. 보건과사회과학, 35, 309-329
- 김영춘(2018).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3, pp. 813-822
- 김정연, 이은주, 하은희(2001). 산업재해 환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직업환경의학지, 13(2), 141-151
- 김종일(2013).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수용, 차별경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4), 59-87.
- 김지원(2017).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서비스 경험이 직업복귀 경로에 미치는 영향. 제4회 산재보험패널학술대회논문집, 55-79
- 김호임(2006). SF-36을 이용한 산업재해 환자의 삶의 질.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소희, 김갑년, 전수영(2018).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 177-188.
- 노유지, 이해경, 이원형, 조정래(2018). 경제, 건강, 관계자원과 다차원적 삶의 만족:중고령인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3), 233-267.
- 문성현(2005). 인구고령화가 산재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보장연구, 21(4), 117-135.
- 문용필, 원서진(2015).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8), 313-325.
- 박선숙(2018).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 29(3), 39-57.
- 박선숙(2019). 세대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세대 차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3), 311-330.
- 박순미(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291-318.
- 박애선(2018).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49-362
- 박종민, 김서용(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아세아연구*, 45(2), 141-164.
- 배정현(2014).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 247-270.
- 성지영, 남은영, 홍두승(2017).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7(2), 33-65.
- 송문희, 권희경(2017). 산업재해 근로자의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산업재해 요인: 범이론 모형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 17(2), 258-268.
- 안성아, 염동문(2016).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10(2), 119-126.
- 양경진(2019).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오종은(2016). 생애주기를 고려한 산재보험 장해연금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회정책*, 23(1), 203-225.
- 오종은, 이찬미(2013). 생애소득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유족급여제도의 개선과제, *한국사회정책*, 20(4), 117-143.
- 윤조덕, 박수경(1998). 산재장애인 삶의 질과 재활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 5(2), 103-123.
- 윤조덕(2016) 산재보험제도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노동보험포럼*, 9(1), 20-33.
- 이인숙 · 배화숙(2008), 고용형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보*

- 장연구, 24(2), 53-80.
- 이자영, 남숙경, 최보영, 이지희, 박양민, 이상민(2009). 문화차에 의해 발생한 심리검사 문항의 번역오류: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8번 문항의 수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3), 1,345-1,358
- 이지수(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9(2), 89-114.
- 이현주(2004). 산업재해 근로자의 삶의 질 모형: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지(2015). 노인의 일상생활수행 장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처기제와 장애수용태도의 매개효과. 재활복지, 19(2), 55-73.
- 임소희(2020). 여성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 만족도 영향요인: 신체·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제6회 산재보험패널학술대회논문집. 128-146.
- 장유미, 염동문(2015). 산재장애인 재활서비스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9(4), 275-283.
- 전병제(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총론 11, 109-129.
- 전보영, 권순만, 조병희, 이태진(2010). 산재장애인의 취업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장애발생 후 직업복귀 상황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2), 199-222.
- 정명숙(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8(4), 87-108.
- 정순돌, 이현희 (2012).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 노인복지연구, 55, 105-131.
- 정해식(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조성희, 김경휘(2019). 산재근로자의 사회관계 변화와 삶의 만족 변화. 사

- 회과학연구, 35(2), 83-104.
- 조영인(2019). 직업복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조은주, 노동희, 한승협, 감경윤(2021). 고령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9(2), 91-104.
- 최현식, 하정철(2012). 노인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 데이터정보과학지, 23(3), 559-568.
- 최효진(2017).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환경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한수정(2021).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문화와 융합, 43(8), 599-624.
- 한준상(2002). 중년기 이후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43-161.
-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46-653.
- Brouwer, S., Reneman, M. F., Bultman, U., Kling, J. J. L., & Groothoff, J. W.(2010). A prospective study of return to work across health conditions: perceived work attitude, self-efficac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20, 104-112.
- Diener, E., Inglehart, R., & Tay, L.(2013), Theory and validity of life satisfactionscal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3), 497-527.
- Felce, D., & Perry, J.(1997). Quality of life: the scope of the term and



- its breadth of measurement. In Brown, R. I.(Ed.),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odels, Research and Practice*. (pp.56-71). Cheltenham: Stanley Thornes.
- Frey, B. S., & Stutzer, A.(2002). *Happiness and economics :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edley, M.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vol. 31, no. 4, 448-455.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s of Gerontology*, 16(2): 134-143.
- Nesterko, Y., Braehler, E., Grande, G. & Glaesmer, H.(2013). Life satisfac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immigrants and native-born Germans: the role of immigration-related factors, *Quality of Life Research*, 22(5), 1005-1013.
- Stock, W. A., Okun, M. A., & Benin, M.(1986).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2), 91-102.
- Veenhoven, R.(1984). *Conditions of Happiness*. Dordrecht: Kluwer Academic.
- Vestling, M., Tufvesson, B., & Iwarsson, S.(2003). Indicators for return to work after stroke and the importance of work for subjective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35(3), 127-131.

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Industrially-injured  
Workers

- Analyze age as a Moderating Effect -

PARK, CHANHO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as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after passing an aging society, and the economically activity population of the elderly is also increasing due to the extension of average life expectancy.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aged 60 or over among industrially-injured workers(IIW) is also on the rise. Although warnings about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are being presented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presented, it seems that there are few studies and policies on the elderly aged 60 or older among industrially-injured

workers(IIW).s).

What is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IIWs? It started with a ques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of elderly IIWs, determine what factors affect the quality of life, and suggest what policies are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IIWs.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the primary data of the 2nd cohort survey of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PSWCI) targeting 3,294 people who completed industrial accident care in 2017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industrial accident factors (disaster type, disability grade, use of rehabilitation services), economic factors (employment status, household income), and psychosocial factors (self-esteem, self-efficacy, social relationship exchange),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used by changing the coding of 6 items of 'Daily Life Satisfaction' in the panel data of PSWCI. In order to more clearly identify the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 on the dependent variable, sociodemographic factors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elderly and non-aged people based on the age of 60,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under 30s, 40s, 50s, 60s or more).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quality of life of IIWs was found to be an average of 3.20 on a 5-point scale. Second, economic factors and psychosocial factor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IIWs, and it was found that industrial accident factors had no significant effect. Third, as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IIWs, it was found that they had a significant effect in the order of self-esteem, social relationship exchange, presence of a spouse, sense of self-efficacy, employment status, and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and gender, which were influencing factors, were not significant.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on life satisfaction of IIW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confirmed in the case of social relationship exchange among psychosocial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providing customized integrated services focusing on elderly IIWs and reforming the WCI(Workers's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for reducing the TDBs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for old workers.

In addition, an integrated approach was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IIWs and revitaliz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amily support programs and relax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payment of nursing.

**keywords : elderly industrially-injured worker(IIW), quality of life, self-esteem, social relationship, Workers's Compensation Insurance**

***Student Number : 2021-20989***